

제주도 굿의 연희적 특징

— 굿의 전투성에 관한 일고 —

문 무 병*

1. 머리 글

제주도의 굿은 누가 보아도 본풀이를 굿본으로 하여 만든 <맞이굿>과 <놀이굿>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神話를 劇化한 儀禮’라고 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본풀이가 神話만은 아니며, 굿이 儀禮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필자가 관찰한 바로는 본풀이는 神話이면서 동시에 민중의 歷史이며, 굿은 儀禮이면서 동시에 민중의 연원을 창조하는 싸움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심한 반발이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굿이 정체되고 화석화된 유물이 아니라, 살아움직이는 생명체요, 민중의 에네르기라는 확신 때문에 굿 형식을 고정시켜 논리를 전개하기 보다는 그 원리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신화보다는 역사에, 의례보다는 싸움이라는 점에서 굿을 일단 살펴보려 한다. 그러므로 이 글은 ‘굿의 전투성에 관한 일고’인 셈이다.

굿은 싸움이다. 굿은 굿판에서 “神의 본을 풀어” 신나락 만나락하고, “神을 맞이하여” 신과 하나되는 만남의 통로를 열고, “신을 놀리어” 神人同樂하는 춤과 노래로 하는 싸움이다. 그러므로 굿판은 싸움터는 아니되 戰鬪의 인 霧圍氣가 있고, 굿은 戰爭은 아니되 민중의 삶에 제기되는 모든 問題— 죽음과 병, 不淨과 삶, 惡神과 外勢—를 풀어 나가기 위하여 民衆의 삶의

* 제주대

무기인 공동체의 神明으로 하는 싸움이다. 공동체의 신명이란 민중의 集團的 정서이며, 집단정서의 통일은 굿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니 죽음과 不淨과 外勞를 물리치기 위한 싸움을 전제로 하여 민중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굿은 “싸움을 위한 굿”이다. 그리고 싸움을 위한 굿일 때 “狀況的 眞實性”, “集團의 神明性”, “現場的 運動性”, “民衆의 典型性”¹⁾ 다시 말하면 굿의 본래적 특성인 “전투성”을 복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투성을 상실한 굿은 민중생존의 해결방식을 갖고 있지 않거나 포기하고 단골 민중에게서 떨어져 나와 상품화된 “文化財로서의 굿”, “관광자원으로서의 굿”이다.

생존의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굿이라면 굿은 民衆의 배고픔과 병, 그리고 죽음을 이겨내기 위한 싸움이다. 굿은 현실의 모순을 척결하는 싸움이다. 현실의 모순을 부정해 나감으로써 얻어내는 변증법적 情緒가 민중의 念願을 解決하는 “싸움굿”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굿은 “본풀이”를 굿본(=굿의 臺本)으로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굿에서 “본풀이”는 민중의 역사와 삶의 體驗, 생존의 치열성과 삶의 眞摯性, 다시 말하면 민중의 批判的 情緒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풀이는 민중의 역사이며, 굿에는 역사적으로 축적된 抵抗精神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의 行爲樣式이 있기 때문에 굿을 싸움이라 하는 것이다. 굿이란 元來 똑같이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모여서는 論議 끝에 아픔을 강요하는 압제에 대한 공통의 쟁점을 確認・集約하고, 그것을 쟁취할 주체를 바로 세우며, 마침내는 행동하다 실천하는 온 과정을 굿이라 했던 것이다. 굿이란 민중이 주도하는 모임이었으며, 다시 이야기하면 反封建 혁명의 世界 그 念願을 創造하는 싸움이였다.²⁾ 그러면 “굿은 싸움이였다”라는 전제를 풀어 나가기 위하여 전통굿에서 “싸움”을 나타내고 있는 흔적이거나 찾아내어 굿의 本來的 意味인 “戰鬪性”을 밝혀 보기로 한다.

1) 채희완·임전택. “마당극에서 마당굿으로”. 『문화운동론, 1985』, p.117.

2) 백기완. “민족과 굿”. 『민족과 굿』(학민사, 1987), p.9.

2. 본풀이와 굿

본풀이는 민중의 역사다. “本”은 뿌리다. 심방들의 말에 의하면 모든 굿의 원리는 세계의 불휘(뿌리)를 근거로 이루어지는데 “신불휘” “꽃불휘” “노불휘”라 한다. 이때 “불휘”는 “뿌리(=本)”이므로 “본풀이”는 神의 根本을 캐어 그 근원을 밝히는 神의 來歷譚이다.

I 신불휘—神의 根本—초공 본풀이—巫祖의 來歷

II 꽃불휘—꽃의 根本—이공 본풀이—生命의 原理

III 노불휘—일의 根本—삼공 본풀이—前生の 業報

濟州島의 일반본풀이 중 이 세계의 뿌리는 굿의 열개를 엮어나가는 原理가 되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늘 玉皇 “삼천천재석궁”을 넘나들며 민중의 원한을 풀어주기도 하고, “서천꽃밭”에 가서 “생명꽃 환생꽃 번성꽃”을 따다가 민중의 생명을 전해주기도 하며, 불행의 惡緣을 씻고 부와 장수를 누리게 하는 신들의 來歷譚이 굿법을 말하는 본풀이인 것이다.

심방은 이 세계의 뿌리를 토대로 굿을 하게 되는데, 민중은 자연과 역사와 관련되어 있다. 천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마을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인간은 어떻게 태어나 무슨일을 하며 살다가 죽는가 하는 민중의 역사를 심방의 굿법에 의하여 풀어나가는 것이 굿이다. 그러므로 굿의 내용은 민중의 역사가 되며, 이러한 民衆史가 “당본풀이”를 완성한다. “당본풀이”는 민중의 조상들이 배고픔을 이기고, 病과 죽음의 외세를 물리치며 살아 온 싸움의 역사다. 따라서 본풀이를 근거로 이루어지는 굿은 民衆이 生存을 이어나가기 위하여 “抵抗精神”을 歷史的 體驗으로 공유하고 있는 “싸움”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본풀이는 민중을 無力化 백치화 個人化 하려는 支配階級의 탄압정책에 끊임없이 저항하면서, 민중을 集團化 공동체화 意識化해 온 조상들의 싸움 이야기다. 그러면 朝鮮時代에 濟州島民의 무속신앙을 파괴하고 유교적인 封建 支配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려 했던 문화탄압의 사례를 “이형상 본풀이”를 통하여 알아 본다. 굿을 시작하는 <조감제>의 아무 날 어디에

서 굿을 한다고 신에게 아뢰는 <날과 국 섬김>³⁾에서 “왕도 법도 못나 던 섬,……영천 이목사⁴⁾ 시절엔 당도 오백, 절도 오백 파괴 파산 시켜오던 이 섬증 되옵니다⁵⁾”하는 사실이 보인다. 그 내용을 보면 中央에서 온 統治者가 당과 절을 부수가 巫俗信仰을 탄압한 事實 그러나 이러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오늘도 神靈을 맞이하여 억울한 원정을 드리며 굿을 하고 있다는 연유를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神堂撤廢說話는 風俗改良과 백성교화란 미명 아래 당 오백, 절 오백을 다 부수고 무속신앙을 원천봉쇄하여 민중세력을 瓦解시키고 儒敎的 봉건체제를 확립하여 변방의 행정력을 강화해려 했던 이형상 목사의 “본풀이”다.

이야기 ①

영천 이목사가 제주목사로 부임한다. 대정 삼음을 순력하다가 광 정당⁶⁾에 이르니 말이 앞발을 절며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 하인에게 까닭을 물으니 토지관(=堂神)이 있기 때문이라 한다. 화가난 목사는 신당을 부술 결심을 하고, 모든 당을 기재하여 울리라고 형방에게 이른다. 형방이 말하기를 “김녕에 뱀굴이 있는데 1년에 한 번 큰굿을 하여 회성을 치룹니다”고 아뢰다. 목사가 심방을 데려다 이레굿을 하자, 큰 구렁이가 열 두자 썸 굴에서 나온다. 재빨리 목사는 칼을 빼어 네로막으로 끊어 죽이고, 돌아오는 길에 골총(폐허가 다 된 무덤)의 허물어진 담을 쌓아주고 온다. 꿈에 골총귀신이 죽음의 위기를 일러준다. 목사는 골총귀신의 덕으로 죽음의 위기를 간신히 면한다. 그런데 두 달 후, 한양에서 두 아들이 죽었다는 편지가 날아온다. 목사는 결국 당신을 이기지 못했고, 당신의 복수로 두 아들을 잃었다.”⁷⁾

이야기 ②

옛날 제주도에는 당 오백, 절 오백이 있었고, 이 당과 절은 모두 신령이 세었다. 숙종 때 영천 이목사가 목사로 부임하여 당 오백, 절 오백을 부수려 하였다. 이목사는 당과 절을 돌아다니며 신령을 보이라 하고, 심방이 굿을 하여도 신령이 보이지 않으면 당을 불질러 부숴버렸다. 모든 절은 신령이 약해 불에 타지만, 신령이

3) 굿을 하는 날자와 장소를 신에게 아뢰는 굿의 제차.

4) 李衡祥(1653~1733)을 말하며, 영천은 그의 아호. 49세에 제주목사로 부임. 51세에 파직 당하였음.

5) 현용준. 「무속자료사전」. p.44 참조.

6) 안덕면 덕수리에 있었던 당. 신령이 선당으로 알려져 있다.

7) 문창현의 “풍속무용 19권”. pp.963-976에 수록된 “영천 이목사 본풀이”를 요약한 것임.

센 당은 굿을 하면, 뱀이 얼굴을 나타내거나 높혀 놓은 큰대가 꿈틀거리며 일어나 저절로 걸어갔다. 이를 보고 목사도 감히 당을 부수지 못하고 그곳을 피해 갔다 한다.⁸⁾

이야기 ③

이 영천이는 깡패라. 최고 깡패라. 왕족이니까 깡패질을 해대도 아무도 건드리질 못했지. 허니 이놈은 유부녀를 통간하질 았나. 쓸 데 없는 것만 해냈지. 물 끊어진 섬이니, 선참후제 사람을 먼저 배어두고 나중에 보고하는 거였지. 그러니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여붙어. 도둑질한 놈도 돈 아니 주머는 대뜸 죽여붙어. 이런 놈의 세상이라. 더러운 세상이어.

위의 설화들은 이목사가 당을 부셨다가 堂神의 복수로 두 아들을 잃고 간신히 달아났다는 이야기와 신령이 뱀으로 꿈틀거리거나 큰대가 일어나 걸어 가며 民衆의 거친 抵抗과 반발을 보일 때, 목사는 이를 피해 달아났다는 이야기 그리고 당을 부순 이목사는 “깡패” “精神 나간 놈” “有夫女 간통질과 살인을 일삼는 殘忍한 놈”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형상 목사가 쓴 「남환박물지」에 보면 “섬의 곳곳에 돌과 나무로 당을 만들고, 每年 正月 초하루부터 보름에 이르기까지 무당들이 독기(蠶旗)를 앞세워 모시고 나회를 꾸며 꿩과리와 북을치며 깃발과 창검을 앞세워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 官員 以下 온 마을 사람들이 다투어 물품과 곡식을 바쳐 祭祀를 드린다. 사람들은 모든 疾病과 생사화복을 음신에게 구하여 극복하러 하므로 자연 무당들의 橫暴가 심하고, 그 무리 또한 많아 백성들의 피해가 크다. 이들은 一般 사람들에게 財物을 강요하고 神堂에 소를 잡아 祭祀지내며 심지어는 마소를 탈취하는 등의 행패가 극심하였다. 이에 地域住民들의 호응을 얻어 신당 129개소와 신당에 관계되는 기물 의복까지 부수고 불살랐다. 이에 무당들이 스스로 그 일에 손을 떼고 농사일에 종사하게 되었다.”⁹⁾하여 神堂撤廢를 강행한 사실을 正當化하고 있으며, 「耽羅紀年」에는 이목사의 치적에 대해 “果敢 正直하여 百姓을 보살피는 일에 힘썼으므로 섬 사람들이 그의 덕을 간직하여 덕화비를 세웠다.”¹⁰⁾고 기록하고 있다.

8) 濟州島 傳說誌(濟州道廳 1985). p.82 제보자 안사인(남, 56).

9) 이형상. “탐라순력도. 남환박물”(精神文化研究所, 1979) pp.96-99.

10) 김석인. “탐라기년” 속종 28년조. (이문당, 1918), pp.65-66.

그러나 설화에 나타난 李衡詳 牧使는 무속을 철폐하여 풍속을 개량하고, 민폐가 심한 요괴(뱀)를 퇴치하여 백성을 救濟한 목민관이 아니다. 뱀을 죽인 것은 요괴를 退治한 것이 아니라 민중의 生命力 다시 말하면 民衆의 삶과 勞動과 情緒를 난도질한 것이며, 民衆이 믿고 依支하는 堂神의 神體를 죽인 것이다. 그러므로 목사의 神堂破壞—妖怪退治—는 民衆의 지주의 對象이 되는 것이다. 민중의 눈에 비친 목사는 結局 獨裁의 下手人이요, 殘忍한 깡패이며 적이요 살이요 부정이요 악이다. 속종 때라면 제주도는 기근으로 수천명이 굶어죽어 왕이 친히 餓死民을 위무하는 글을 내린 적도 있었다. 凶荒과 飢饉의 濟州島, 그러나 죽지않고 끈질기게 堂神을 중심으로 민중의 세력을 결집하고 생존을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제주민중들에게 목사는 통치의 위기를 느낀 것이다. “무당의 행패가 심하다”는 것은 통치할 수 없는 限界, 그 위기감의 표현이다. 따라서 이런 위기감을 克服하기 위해서 굵을 벌이던 민중을 “혹세무민”이라는 미명 아래 彈壓하기 시작한다. 당오백, 절 오백을 파괴하여 민중의 氣—抵抗—를 꺾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神靈을 보이라”는 칼의 협박에 “뱀이 나타나 꿈틀거리고”, “큰대가 일어서서 걸어가는” 神의 출현은 독재세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민중의 抵抗을 나타내고 있다. 칼의 억압은 민중의 직접적인 도전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목사는 이를 피해 가는 것이다. 큰대는 신내림의 道路이기도 하지만 “삼천병마 일만 조깃발”의 깃발, 戰爭의 깃발이요, 堂神의 神體이다. “뱀의 꿈틀거림”은 민중의 抵抗의 모습이요, 원한의 웅어리를 나타낸다. 따라서 神堂撤廢說話는 목사의 文化彈壓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싸움굿”의 굵본인 “본풀이”인 것이다.

3. 굵 판

“본풀이”를 굵본으로 이루어진 굵이 민중의 염원을 창조하는 싸움이라면, 굵판은 싸움터이다. 濟州島의 전통굿에는 굵의 本來的 내용이라 판단할 수 있는 싸움판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가 있다.

(1) 삼천 병마와 일만 초깃발

굿판은 兵馬와 旗를 세운 싸움터를 상징한다.

큰굿을 하려면 굿을 시작하기 전에 마당에 큰대¹¹⁾를 세우고, 좌우에 큰대보다 작은 좌우도기¹²⁾를 세우고, 간단히 기메고사¹³⁾를 한 후 수심방과 전 樂士(小巫)들은 악기를 들고 수심방을 따라 큰대 앞에 서서 악기를 울리고, 절 삼배를 하여 三千天帝釋宮에 굿을 알린다. 이를 “삼석올림”이라 하며, 굿의 제차로는 “삼천병맏대(三千兵馬) 세움”이라 한다.

천신기는 기 낮추고, 흑신기(땅의 월덕기)는 기 도투와, 삼천병맏대 일만초깃발 기초발립(旗幟發立)하여 신을 모이고자 합니다.¹⁴⁾

신을 모으는 것은 기를 세우는 것이요, 기를 타고 신이 내려오기 때문에 큰대는 하늘과 땅을 가장 가까이 잇는 神의 下降路이다.

그러나 큰대의 여러가지 장식(원덕기나 대동기의)은 神의 形體라 하며 좌우에 세운 “좌우도기”는 신들의 部下將卒을 뜻한다 하니, 기는 神의 몸이기도 하다. 또 큰대를 세우고 “三千兒馬”와 “一萬 깃발”을 세웠다고 심방이 아뢰는 것은 싸움터에 진을 치고, 싸움의 준비를 갖춘 億萬大軍의 陣營을 암시하는 것이므로 굿판은 싸움판이다. 심방의 巫服이 軍服인 것은 그런 연유일 것이다. 심방은 굿을 할 때 군복을 입고 등장하여 굿문을 연다. <시왕맞이>에서 군복차림으로 저승 열두문을 돌아다니는 모습은 아무래도 굿판이 싸움판임을 암시하는 것 같다. 그 싸움이 실제의 싸움은 아니더라도 병과 죽음을 이기는 싸움, 현실의 모순을 거둬내고 “맑고 공정한 저승법”으로 정치하는 싸움, 謀議의 싸움이다. <맞이굿>을 할 때 심방은 감상기를 흔들거나, 엮드려 기를 깨끗이 세우거나, 감상기를 들고 신을 모셔 들이는 동작

11) 월덕기 또는 대통기라 한다. 대통기는 큰대 끝에 큰 통처럼 만든 기를 달아 맨 것인데, 龍의 모양을 나타낸 것이라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통기 대신 평면으로 된 새개의 기를 나란히 달아매는 이 기를 월덕기라 한다.

12) 큰대 좌우에 달아매는 기. 큰대가 신의 항체라면 이 기는 신의 補佐官.

13) 旗를 위한 고사(祭).

14) 현용준. 「제주도 무속 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p.529.

을 하는데 심방은 신의 대리역인 동시에 신의 몸을 나타내는 기를 들고 있거나, 신을 안내하는 본향당신의 역할로 감상기를 들고 있는 것이므로, 심방은 굿판을 통하여 싸움판을 이끌어 가는 장두(神)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깃발은 여러가지 의미를 지니게 된다. 제주도의 굿에는 여러가지 종류의 기들이 등장한다.

명 칭	구	조	기 능
감상기	생 대나무 가지+백지를 묶은 것		降神의 機能이 있다
차사기	생 대나무 가지+백지+인형모양의 종이		移動形神體를 나타냄
영개기	생 대나무 가지+인형모양의 종이를 묶은 것		固定形神體를 나타냄
성주기	생 대나무 가지+백지+인형지+지전		兩用으로 使用

여기에서 생 대나무 가지에 白紙를 달아 맨 것은 큰 古木에 物色紙錢을 걸쳐 놓은 堂神木이나 굿을 할 때 큰대의 꼭대기에 생솔잎을 묶어 매고 요령과 백지를 달아 맨 큰대의 축소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들은 모두 降神의 機能과 神體의 機能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¹⁵⁾

따라서 旗는 神體이므로 신의 모습을 나타내며, 굿을 할 때는 감상기가 주가 된다. 감상기는 本鄉堂神의 역할을 하여 신을 안내하는 기이므로 기가 움직이는 것은 신이 움직이는 것이며, 신령이 나는 것이다. 또 기는 싸움터에서는 소속 부대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깃발의 움직임을 통하여 싸움의 현장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굿판은 깃발을 날리며 역만의 군사와 병마를 단 장두들(신들)이 장엄하게 출정하는 싸움판이다.

(2) 시왕대반지(=신칼)

“시왕대반지”라고 하는 신칼은 심방이 굿을 할 때 유용하게 쓰는 巫具로

15) 현용준. “濟州島 巫儀의 ‘기예’ 고”. 文化人類學 제 2집(서울 문화인류학회, 1969), pp. 87-89.

巫祖神의 징표로서 심방에게 준 명두 중의 하나다. 이 칼은 巫祖神話에서 보면 무조 삼형제(신명두, 본명두, 삼명두)가 兩班 삼천선비의 목을 단칼에 베어 어머니의 원수를 갚은 복수의 칼이다. 모든 굿은 굿판에서 신칼을 던져 접을 치며 진행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싸움굿”이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신칼은 복수의 칼이며, 싸움의 무기인 동시에 인간의 모든 감정과 갈등을 표현하는 무점구요, 경우에 따라서는 生活用具 또는 農事用具와 같은 굿의 소도구로도 사용된다. 심방이 굿에서 신칼을 다루는 솜씨는 칼을 들고 춤을 추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고 차분하다. 그러나 신내림이 다가올수록 살의를 띠우며, 신칼을 뱅글뱅글 돌려 접을 친다. 이것은 문제의 解決與否를 칼로써 점울치는 것이다. 물론 칼이라기 보다는 神의 意思를 점치는 무점구로 바뀌어버린 신칼에서 “살의” “決斷” “離別의 갈등” “사랑”을 점치는 것은 현실의 모순—살의 離別 사랑 갈등—을 한칼에 베어버린다는 의미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신칼 또한 神體이며, 神의 감정을 표현한 무점구이며, 심방의 조상인 巫祖神이며, 싸움의 무기이다. 다시 말하면 신칼은 어머니의 원수를 갚기위해 심방이 되어 굿을 하여 삼천선비의 목을 베어야 했던 “상놈의 한”이며, 이를 풀어나가는 상징적인 “싸움의 무기”인 것이다.

이 칼은 사람잡는 칼이 아니고 귀신잡는 칼이로다. 시왕대만지 둘러받아 너른 마당 번개치듯 좁은 마당 벼락치듯 나사나명 나사들자. 나사나명 풀어래자. 쑤어나라. 쑤어나라. 헛쉬!¹⁶⁾

(3) 굿춤, 연물가락(巫樂)

제주도의 굿춤은 神의 行爲를 模倣한 것이라 한다. 그러므로 신이 나는 것인데, 사실은 민중의 신은 신이 아니고 인간의 모습이다. 굿판에서 심방이 춤으로 행위를 모방하는 신은 싸움의 현장에 등장한 조상신이며, 싸움의 장두인 것이다. 그러므로 神의 모습은 그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러나 싸움으로서의 굿에는 신의 위임과 靈力을 나타내는 巫樂이 따른다. 濟州島의 巫

16) 환자의 몸에 있는 잡귀를 내쫓을 때, 신칼로 험박하며 외치는 주문.

祖神話(초공 본풀이)에서 보면 巫祖인 잿부기 삼형제가 어머니 원수를 갚기 위해 三千天帝釋宮으로 올라갈 때 불도땅에서 너사매의 아들 너도령을 만난다. 형제들은 너도령과 “어머니의 속옷에서 나오는 儀式”으로 한 배 형제처럼 의형제를 맺는다. 너도령은 樂器의 神이므로 巫祖神과 樂器의 神이 한 배 형제가 되는 儀式은 神의 동작을 모방하는 춤과 무악이 서로 어긋나서는 안 될 불가분리의 관계임을 나타내고 있다. 심방 集團은 大部分 친척 관계에 있다. 이와 같이 特殊 연희집단이 친척관계에 있으면 곳을 여행할 境遇 수심방이 주는 춤이나 小巫가 치는 樂器는 서로 잘 어울려 춤과 연물(巫樂)이 서로 잘 어울려 하나로 통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초공 본풀이에서 무조신과 악기의 신이 한 배 兄弟와 같은 예인 집단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팔자를 그르치 심방 集團 또한 친민 집단의 藝人共同體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굿이라는 豫備의 싸움에서 춤과 무악은 하나로 통일되어 “싸움의 신명”을 북돋우고 있는 것이다. 춤과 무악이 하나가 될 때 신명이 난다는 말을 “춤이 박자를 따라가는지 박자가 춤을 따라가는지 구분이 안 되는 경지”가 신명이란 말이며, 이러한 상태는 한 집단과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경지이다. 그러므로 무악의 기능은 심방의 기능과 일치한다. 심방이 接神感染의 機能, 同一視 媒介의 機能, 한풀이의 機能, 治病의 機能, 演技者의 機能에 있는 것처럼 무악은 神과의 交通의 도구로서 接神의 機能, 죽은자를 살려내는 神秘力의 機能, 精神의 肉體的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제의 機能, 웅어리진 감정을 해소시키는 한풀이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¹⁷⁾ 따라서 굿춤이 싸움판에 등장하는 민중의 조상 “삼천병마와 일만 초깃발”을 날리며 등장하는 장두의 모습이라면, 무악은 민중의 싸움에 사기를 돋우는 신명의 가락이며, 싸움의 行進樂, 다시말하면 “길군악”¹⁸⁾이다. 마을 굿에서 모든 절구의 “길놀이”의 박자가 군대의 행진, 진을 짜는 박자인 것도 굿이 싸움이란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17) 조영배. “제주도 민속음악의 미적 기능”(민속학회, 1987). pp.214-33.

18) “길군악”은 길을 가면서 부르는 민요로서 “길군악”의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길놀이 또는 길노래의 의미보다 “軍”의 의미가 강조되면 이것은 어김없이 군대의 행진곡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싸움굿의 “행진곡”이다.

(4) 본향청합과 군병질침

제주도의 民亂은 反封建 抗租鬭爭이거나 反外勢 民族鬭爭이었다. 민란의 출정식을 보면 모든 민중이 본향당에 모여 堂神 앞에서 굿을 하고, 수많은 깃발을 앞세우고 걸군을 하며 행진해 나간다. 이것은 싸움의 진행이 마을굿과 동일한 형태임을 말해준다. 이때 무악은 전쟁의 북소리와 다를 바 없다. 제주도의 당굿이나 큰굿의 〈맞이굿〉에서는 본향당신을 맞이하여 놀리는 祭次가 있다. 이를 “본향당신놀림”¹⁹⁾이라 하는데, 본향당신을 굿판에 등장시켜 신의 위엄을 보이는 격렬한 신명굿이다. 이 때 심방은 감상기를 활로, 신칼을 화살로 잡고, 펄쩍 펄쩍 뛰다가 다시 무서운 눈으로 사냥감을 겨냥하여 사냥감을 잡는 시늉을 하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 겁을 먹고 일어서서 절을 하면 빈다. 이처럼 무서운 堂神의 모습은 사냥을 하던 조상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생존을 건 모든 싸움에서 민중을 이끄는 장두의 모습이다. 힘은 장군이지만 소모할 수 없는 힘과 배고픔의 고통에 항거하는 싸움판에서의 민중들 그 자체의 모습이다. 이와같이 굿판의 절정은 본향당신의 출현으로 강화된다. 堂神의 출현은 마을의 역사와 삶의 체험 속에 성장한 민중들에게 싸움의 신명을 불러 일으킨다. 삼천 병마를 거느리고 억만 대군을 이끌고 일만 초깃발을 날리며 소모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민중과 더불어 현실의 모순—억압, 부정, 원한—에 정면으로 지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향당신을 맞이하게 되면 뒤따라 억만 군사가 들어오는 길을 뚫고, 이들 배고픈 귀신(軍兵)들에게 떡 밥 고기를 나누어 주는 굿을 “군병질침”이라 한다. 군병은 난리에 억울하게 죽은 민중들로 저승도 못가고 이승에도 있을데가 없는 바람처럼 구름처럼 떠돌아 다니는 雜鬼들이다. 싸움터에 무참히 쓰러져 죽음으로 떠도는 잡귀들은 산사람에 들려 해꼬지를 한다. 이들에게 떡과 밥을 주어 그 원령을 위로하며 살려내는 굿이 “군병질침”이다. 잡귀들을 살려내는 것은 싸움의 현장을 살려내는 것이기도

19) 본향당신을 놀리는 재차를 “본향다리”라 한다. 당본풀이를 굿본으로 신의 무용단과 사냥행위를 격렬한 동작과 춤으로 보여준다.

하다.

4. 싸움의 미학

(1) 恨의 情緒

제주인에게 恨은 무엇이며, 어떻게 풀어 왔는가. 三多 三無처럼 이야기한다면 “눈물 수건”, “땀든 의장”, “태 손 땅”이 濟州 사람들의 입에서 맺힌 한을 이야기하는 살아있는 말이다. 三恨이라고 할까. 고통 할 때 한 맺힌 생활상을 나타내는 이 말들은 濟州島民의 성격과 특징을 잘 함축하고 있다.

① 눈물 수건 : 여인들이 머리에 쓰는 수건이다. 노동할 때는 해를 가리고, 땀을 닦고, 서리를 때는 눈물을 닦는 수건이다. 민중의 恨많은 삶을 상징하기도 하며, 죽은 조상(神=영개)에 대한 한풀이를 생각하게 한다.

② 땀든 의장(땀 뻘 옷) : “갈증의(갈옷)”를 뜻한다. 도민의 험겨운 노동의 삶을 상징하며, 노동의 고통에서 오는 한을 나타내는 것이다.

③ 태 손 땅(胎 사문 땅) : 고향을 버릴 수 없는, 땅에 대한 애착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민중의 폐쇄적이며 반의세적인 삶의 태도를 상징하는 메마른 땅에 사는 서러움의 한을 나타낸다.²⁰⁾

제주도민은 이렇게 한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오는 患難을 물리치고 가난을 극복하여 왔다. 다시 말하면 “한풀이”는 제주 전승문화의 내용으로 제주인의 역사와 체험의 정서, 생활과 노동의 정서의 내용을 이루어 왔다는 것이다. 고통 하여 조상의 죽은 영혼과 직접 대면하고, 맺힌 恨을 실컷 터뜨려, 죽은 조상의 한을 풀면 산 사람의 병도 저절로 낫는다는 생각에서 “일천 간장에 맺힌 시름”을 풀어 온 “한풀이의 정서”는 제주인의 미의식의 뿌리이다. 그리하여 제주도민의 美意識은 역사적 상처에 대한 보상, 지리적 약조건에 대한 적응,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경제적 약조건, 노동의 이종고, 세금, 부역, 진상 등 중앙정부 관리들의 수탈에 대한 저항의

20) 참고. “濟州島 곳의 演劇性”. 「共同體文化」 제 1권, 공동체, 1984, p.488.

식들을 삶의 미학으로 완성시켰던 것이다. 이것이 곧 “굿의 전투성”이며, 이러한 민중의 미의식이 역사 시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새로운 싸움굿일 때 전통굿의 현대적 의미는 되살아나는 것이다. 그러면 민중의 미의식은 체계적으로 어떤 미적 행위 美學的 生事觀을 형성하였고, 濟州人의 性格 行動樣式에 어떤 작용을 하였으며, 어떤 精神的·物的 토대를 이루어 왔을까?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 태 사룬 땅의 “역사와 체험의 情緒”요,

II 땀 뻘 옷의 “생활과 노동의 情緒”요,

III 눈물수건의 “한풀이의 情緒, 변증법적 情緒”라는 것이다.

① 經驗的 情緒

민중의 정서는 경험적이다. 민중은 생활의 역사와 삶의 체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時代 같은 地域 같은 政治의 상황에서 같은 勞動 生事活動을 하고 있기 때문에 意識構造나 행동양식이 동일하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느냐하는 사상과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감정이 일치하게 된다는 말이다.

역사와 체험을 공유하여 民衆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그 일체감이 集團的으로 작용하게 될 때, 우리는 이를 공동체의 신명이라 하는 것이다.

濟州島 民衆의 歷史는 反外勢 民族鬭爭, 反封建 抗租鬭爭이라는 민란의 역사였다. 이는 굶주림에 항거해 온 생존을 건 싸움이었고, 이러한 싸움에는 언제나 장두가 필요했다. 누군가 나서서 民衆을 이끌고, 싸움을 걸고 이끌어야만 했다. 제 한목숨을 바친 장두가 있음으로 민란은 가능했던 것이다. 민란이 현실의 모순—굶주림, 압제—을 해결하는 싸움이며 장두가 민중을 이끌었다면, 굿은 현실의 모순—병, 不淨—을 풀기 위해 심방이 民衆을 이끌고 벌이는 싸움이다. 그러므로 과거와 현재의 歷史的 만남인 굿을 통하여 “장두정신”은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民衆의 굿은 이러한 역사를 <본풀이>로 간직하고 있다. <본풀이>는 굿을 엮어 나가는 “굿본”으로서 장두의 무용담을 싸움굿으로 엮어 나가며 장두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濟州島의 巫俗信仰은 마을의 설촌과 설촌한 조상들의 장두정신을 계승하면서,

그 뿌리의 내력을 經驗的 정서로 완성해 가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環海千險의 섬이다. 이러한 환경의 악조건은 바람의 신을 잠재우는 무속신앙과 바람을 막기 위하여 돌을 쌓아 온 생활문화를 만들어 내었다. 이러한 민중의 環境의 經驗의 情緒는 돌과 바람의 이중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지만, 바람을 다루는 돌의 지혜를 經驗的 情緒로 배워왔던 것이다. 이를 “바람의 文化” 또는 “돌의 文化”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民衆의 經驗的 정서를 만들어내는 미의식은 많다. 삶의 위기의식에서 오는 “즈낭 精神”, 노동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어여도의 樂園思想”, 자손의 번영을 위하여 무덤자리와 새마을을 찾아 온 “풍수신앙”들도 모두 생활체험에서 나온 사상체제였다. 이러한 經驗的 情緒는 地域文化의 특징을 갖추면서 산 자와 죽은 자의 歷史的 體驗을 공유하는 곳을 통하여 “抵抗精神의 뿌리”를 계승하여 왔던 것이다.

② 生産的 情緒

民衆의 정서는 생산적이다. 生産的 情緒란 노동의 정서란 말이다. 民衆은 生活現場에서 일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일을 하면서 춤을 추어 노동의 고통으로부터 삶을 해방시킨다. 일과 놀이는 분리될 수 없다. 노동이 생산활동이며 삶의 연장수단이라면, 노동의 고통을 더는 휴식이나 삶의 긴장을 푸는 놀이나 노동 그 자체를 강화시켜주는 일노래들은 육체적인 노동의 고통을 극복하게 하고 삶의 의욕과 활력을 불어 넣는다. 이것이 바로 노동의 정서다. 힘을 소모하며 즐기기 위하여 노는 소비적 정서가 아니라 서로 힘을 합하여 일을 하고, 서로 힘을 합하여 노는 공동체적 일체감에서 오는 생산적 정서다. 따라서 勞動의 情緒는 서로 어울려 일을 하는 “수눌음 精神”으로부터 발전되는 집단신명이다. 살기 위하여 서로 조직하고 살기 위하여 서로 힘을 합쳐 일을 하고 일의 댓가를 서로 나누며 놀이를 통하여 다시 노동과 싸움을 재생산하는 공동체적 일체감을 신명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신명이 노동의 정서다. 신명으로 하는 노동 또는 노동의 신명에서 민중의 건강한 생활의 정서, 노동의 정서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의 정서는 획일화된 무의식의 정서가 아니며 침묵을 조장하며 압제에 순응하는 개

량주의적 정서가 아니라, 어려운 일을 수놓어가면서 일하고 조직하고 싸우며 건강하고 신이나는 일하는 아름다움 다시 말하면 조직의 미, 통일미, 해방의 미, 나눔과 섬김의 미를 일하는 즐거움 속에 나누어 갖는 미학적 견해의 통일감이요 공동체적 설명의 정서인 것이다. 이러한 정서는 “너넉하고 푸지고 건강하고 살판나는 아름다움”인 것이다. “뚝든 의장”에서 베어 나오는 땀내나는 아름다움인 것이다.

③ 批判의 情緒

민중의 情緒는 批判的이다. 批判的 정서란 부정과 저항과 싸움을 통하여 얻게되는 변증법적 정서다. 굿은 현실의 모순을 부정하며 극복한다. 民衆의 現實인식은 삶의 압제에 대한 抵抗性 삶의 태도의 眞摯性 생존의 熾熱性 생의 인식의 悲劇性이 두드러지며, 이러한 인식은 현실의 모순을 긍정하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부정하고 극복하고 있다는 데에 民衆의 美意識이 있는 것이다. 부정을 통한 체념의 극복은 신명을 얻는 동시에 감정전이를 차단하는 소의효과를 얻는다. 이러한 변증법적 정서는 經驗的 정서나 生産的 정서를 진보적으로 발전시킨 싸움의 정서다. 민중의 현실인식에서 삶의 태도의 진지성이라든가 생존의 치열성은 歷史的 環境的 影響에서 온 日常的 經驗的 態度이겠지만, 政治的 상황의 불안이나 삶의 압제에 대한 抵抗性, 그리고 진지하고 치열한 삶의 태도가 한계에 달하였을 때 오는 생의 인식의 悲劇性은 특히 민중의 批判的 情緒를 풍부하게 하였다. 濟州人의 뱀신앙과 도깨비신앙은 政治的 상황에 대한 抵抗性과 無關하지 않으며, 현실의 모순에 대한 批判的 정서의 내용이 되고 있다. 뱀은 民衆의 저항의 상징이며 堂神이기도 하다. 표선면 토산리의 당신은 뱀이다. 환자의 병이 堂神을 잘 안 모신 탓이라 생각될 때, 굿을 하여 토산당 신(=뱀)을 놀린다. 이때 <방울뿔>²¹⁾을 하는데 “방울신”이라는 긴 천을 매듭을 만들어 환자의 몸에 대고 “땀한 간장 풀어내자” 하며 고리를 풀어 나간다. 뱀으로 나타나는 堂

21) <방울뿔>은 토산 본향당신을 놀릴 때, 긴 무명을 매듭지어 놓고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는 상징적인 극의례로 육지부의 “고풀이”와 유사한 것이다. 환자의 병은 원령이 들린 것이므로, 원령의 恨은 생자의 병이며 “방울”이다. “방울”은 왜적들로부터 겁탈 당한 원령의 가슴에 땀한 恨이다.

神은 왜놈에게 겁간 당해 죽은 처녀의 원령이다. 따라서 방울은 민중의 원한이며, 방울을 푸는 것은 주술적으로 원한의 풀림을 나타내는 것이다. 환자가 치료되는 것은 원령의 한이 풀릴 때이다. 또 미친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영감놀이>를 하는데, 영감(=도깨비)이라는 악신을 쫓아보내는 치병 곳이다. 악신이 영감 도깨비인 것은 정삼품 이상의 벼슬아치인 “영감”에 대한 역사적 피해의식이 잠재해 있는 것이다. 영감신이란 도깨비는 “양반=疫神”이라는 공포의 대상으로 환자 속에 내재해 있고, 이 환자 속에서 영감을 분리시키고 쫓아보내면 환자는 병을 고치게 된다는 것이 영감놀이이다. 따라서 이 곳은 민중의 생활체험과 역사의식을 반영하면서 양반을 풍자한다. 강한 악신을 조롱하여 보내는 놀이곳은 민중의 비판적 정서의 한 표현이다. 또 생의 인식의 비극성을 극복하는 批判的 情緒로서 “한풀이”를 들 수 있다. 혹자들은 “한풀이”를 諦念的 정서로 파악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事實 “한풀이”는 諦念的 情緒가 아니다. 곳의 전투성이 살아 있고, 민중의 정서가 비판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한풀이”는 모순된 현실의 悲劇性을 딛고 일어서는 변증법적 情緒 批判的 정서인 것이다. 民衆의 한많은 삶은 “눈물 수건”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닦음으로써 엄청난 비극을 딛고 일어난다. 이러한 생의 悲劇的 인식은 삶의 체념과 포기라 아니라 저주와 독설에서 힘을 얻어내고, 부정을 통하여 현실을 극복해 내는 신명으로 인하여 극복되고 있다. 悲劇的 상황에 정면으로 대응하여 얻어내는 해방의 情緒, “눈물 수건”을 적시는 한풀이의 정서를 우리는 批判的 情緒요 변증법적 정서라고 하는 것이다.

(2) 解放과 統一의 情緒

곳은 형식으로 보면 신령의 ‘本을 풀어’ ‘맞이해서 대접하거나’ ‘놀이를 통하여’ 신의 노여움이나 인간의 재액—病 또는 恨—을 해원시키는 의식이다. 그런데 곳의 내용은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푸는 ‘풀이의 구조’이다. 곳을 할 수밖에 없는 딱한 사연이 있을 때 단골(신앙민)은 심방(巫堂)을 찾아가 곳을 의뢰하게 되고, 심방은 단골의 연유를 잘 닦아 신에게 아뢰고,

신의 의사를 알아내어 단골들에게 신의 분부를 사퇴는 것이다.

그러므로 굿은 형식적으로 본풀이(神話)를 <굿본>으로하는 의례(ritual)이지만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싸움’을 내용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서 전제한 본풀이는 신화이면서 동시에 민중의 역사라는 점, 그리고 굿은 제의이면서 동시에 싸움이라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굿 형식을 통하여 성취되는 내용은 민중의 염원을 성취하기 위한 싸움, 역사적 필연의 싸움을 완성하는 것이 된다. 그것은 정당한 싸움이다.

굿의 내용이 문제를 해결하는 싸움일 때, 그 ‘풀이의 구조’ 속에는 역시 민중의 미의식이 역사적 체험, 노동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해방의 정서, 동일의 정서를 만들어 낸다.

① 당굿과 병굿(예비적 싸움과 모의적 싸움)

제주도는 어디를 가나 마을의 수호신적인 本郷堂神이 있고, 마을은 이 堂神을 중심으로 신앙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당신을 잘 모시지 않으면 신의 노여움으로 몸이 아프게 된다. 이 병은 공동체의 이탈을 규제하는 당신이 내린 질병이다. 堂神은 마을의 設村 祖上이기 때문이다. “조상을 박대한 사람은 아니 된다”란 속담은 병의 원인을 “조상 즉 堂神을 안 모신 탓”으로 여기는 것이며, 이러한 ‘금지된 것’ 또는 ‘금하는 것’을 어겨서 병을 얻었을 때 하는 <병굿>은 병을 고치기 위하여 조상(또는 堂神)을 놀리는 <당굿>이다. 그러나 <당굿>과 <병굿>은 사회적, 정치적 내용이 다른 싸움이다.

[당굿과 병굿의 차이]

내 용	병 굿	당 굿
① 政治的 상황	彈壓 국면일 때	有和 국면일 때
② 전투성이	弱化, 回想的 謀議의 싸움	回復, 豫備의 實踐의 싸움
③ 굿을 하는 까닭	祖上(怨靈)을 慰勞	조상을 잘 待接
④ 의례의 場所	비밀한 場所, 집이나 들판	공개된 場所, 당이나 일터
⑤ 의례의 執行	非公開的	公開的
⑥ 의례의 性格	개인적이며 家族的	집단적이며 共同體的
⑦ 의례의 名稱	家祭(병굿, 두된굿)	堂祭(당굿, 마을굿)
⑧ 의례의 機能	治病, 한풀이의 解冤굿	季節祭儀, 집단신병의 解放굿
⑨ 의례의 效果	鬼神을 달래어 쫓아낸다	신을 맞아 풍요를 祈願

이와같이 <당곳>이나 <병곳>은 실제적인 싸움인 민란을 전후하여, 치뤄지는 예비적인 또는 모의적인 싸움곳이다. <당곳>의 역량이 강화되고 조직화되어 분출한 것이 民亂이라 한다면, 민란은 당신앙을 토대로 한 신앙공동체의 정치투쟁이다. 그러나 난리가 끝나면 민란을 이끌었던 장두가 처형되며, 많은 민중의 시체는 까마귀밥이 된다. 中陰의 세계에서 떠도는 것이다. 이승도 못가고 저승에도 가지 못해 중음의 세계에 잡귀로 떠도는 ‘軍兵’들은 사람을 해꼬지한다. 이때 잡귀(군병)를 달래기 위해 치뤄지는 싸움곳이 병곳이다.

민란의 실패로 민중의 세력은 와해되고, 처절한 절망감을 겪는다. 그러나 민중세력의 재집결은 요원해지고 곳은 노골적으로 탄압을 받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밀히 치뤄지는 <병곳>은 전투성이 약화된 모의적 싸움으로 싸움의 비참한 상황을 재현하고, 중음의 세계에 떠도는 군병들을 위로하여 맞힌 조상의 한을 푸는 것이다. 산 사람의 병은 역사적 상처를 치료하므로써 치유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병곳>은 면밀히 치뤄지며, 외부인을 꺼려 한다. 난리에 죽은 집안의 원혼을 공개하기 꺼려하는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② 맞이와 놀이(통일곳과 해방곳)

<맞이곳>과 <놀이곳>을 통하여 민중의 美意識을 살펴보기로 한다.

곳을 통하여 거리감을 느끼던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일체감을 얻을 때 이를 통일의 정서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삶의 왜소화로 안으로만 멎혀있는 매듭을 풀고 갈등을 해소하는 순간의 자유를 해방의 정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방 통일의 정서는 <맞이곳>과 <놀이곳>의 원리가 된다.

<맞이곳>은 ‘신의 길을 닦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이 병이 들었다고 판단하고 하는 곳이다. 심방이 신을 맞이하는 것은 신의 길을 닦는 것이며, 이를 <질치기(길을 닦는 곳)>라 한다. 신의 길을 닦는 것은 과거와 현재 신계와 인간계에 다리를 놓는 것이며,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질치기>는 신의 길을 잘 닦으면 산 사람의 병이 낫기 때문에 길을 닦는 곳인데 이때의 길은 ‘신질(신의행로)’이며 ‘저승의 길’이라 하지만, 산 사람의 고달픈 인생의 행로이며 삶의 형극이며 거친 노동의 현장이며 동시에

신과 인간이 만나는 통로인 것이다. 그러므로 길을 닦는다는 것은 삶의 절망, 신과 인간의 딱 막힌 통로를 열고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신을 맞이한다는 것은 새로운 장두를 맞이하여 직접 싸움을 벌인다는 의미도 있다.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통일의 정서는 <맞이굿>을 직접신명의 싸움 굿이 되게 한다.

<놀이굿>은 악신이 범점으로 인하여 병들었다고 판단하고 하는 굿이다.

풍운조화와 온갖 심술을 부리는 신이 인간의 몸 속에 깃들어 있으므로 환자에게 범접한 신을 놀린다. 신을 놀린다는 것은 인간과 신이 함께 논다는 것이며, 이러한 신인동락은 인간이 신의 지위에 서는 것이며, 그래서 신명이 난다는 것이다. 오히려 인간이 신보다 우위에서 신을 조롱하고 놀려 달래어 쫓아보내는 것이 <놀이>의 비판적 정서다. 환자에게 범접한 악신—병 또는 의세—을 쫓아냄으로써 환자는 새 사람으로 재생한다. 신을 간접적으로 헐박하여 쫓아 보내는 것은 공동체 내의 이질성을 배척하는 것이며 환자의 일상적인 삶에 끼어든 모순—살과 부정—을 척결하는 것이다. 신의 축출은 인간이 신과 대등한 지위에서 갈등의 화해를 제의하는 싸움의 왜곡 또는 간접싸움이다. 인간 속에 내재한 삶의 질곡, 그 맺힘이 풀리는 순간에 획득되는 해방의 정서를 <놀이굿>을 통하여 획득하는 것이다.

[맞이굿과 놀이굿]

구 분	맞 이(통일굿)	놀 이(해방굿)
① 神의 性格과 地位	地位가 높은 착한 神	지위가 낮은 惡한 神
② 神과 人間의 關係	水平的 지위가 있다	垂直的 地位가 다르다
③ 굿의 原理	부정을 쓸어버리는 淨化	악을 구축하는 宥和
④ 굿의 效果	신과 인간의 거리를 좁힘	신과 대등한 지위에 섬
⑤ 굿의 特徵	막힌 통로를 여는 만남굿	배고픔을 해결하는 나눔굿
⑥ 굿의 差異	선신을 맞이함	악신을 쫓아냄
⑦ 신명의 種類	直接神明	間接神明
⑧ 美意識	勞動의 情緒 > 批判的 情緒	勞動의 情緒 < 批判的 情緒
* 새로운 굿의 分類	分斷 극복의 통일굿	갈등 해소의 해방굿
* 굿의 戰鬪性	장두를 맞이하는 직접싸움	악신을 쫓아내는 간접싸움
* 굿의 目的	민족의 同質性 回復	민중의 平等性 獲得

이와같이 <맞이>와 <놀이>는 모두 <본풀이>를 굿본으로 춤과 노래, 대사와 행동으로 짜여진 <굿놀이> 또는 싸움굿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위가 높은 착한 신을 맞이하는 <맞이>와 지위가 낮고 악한 신을 쫓아내는 놀이는 여러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여준다.

따라서 굿은 신과 인간의 종속관계에서 신과 인간의 평등관계로의 이행과정이다. 굿이 신과 인간이 더불어 즐기는 <놀이굿>일 때, 굿은 곧 演劇이다. 굿이 적어도 서구적인 演劇이 아닌 民族劇으로서 <놀이굿>이라 하려면, 신과 인간의 從屬關係—觀念的 秩序—를 해체하고 신과 인간의 平等關係가 짝어도 굿판에서 유지되어야 신명나는 싸움굿이 되는 것이다.

* 맞이굿—신인동체—직접신명—분단극복의 통일굿으로

* 놀이굿—가무오신—간접신명—평등굿, 나눔굿, 해방굿으로

5. 마 무 리

굿은 제의적 연극이며 무속이기도 하지만, 본고는 ‘운동으로서의 싸움굿’이라는 점에서 굿의 원리를 살펴 보았다. 마을의 神堂에 가 보면 지전과 물색이 치렁치렁 걸려있는 것을 본다. 신비롭고 눈부시게 아름답다. 그것은 민중의 역사이며,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지전물색이 민중의 염원이라면, 퇴색한 먼 시간의 것과 최근에 새 것이 조화를 이루어 우연인 것처럼 화려하게 걸려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민중의 염원이 시간적인 질서에 따라 조화를 이루며, 종이조각에도 고목나무에도 신령으로 깃들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본풀이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굿을 했던 것 비나리를 했던 증거물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로 민중의 가슴 속에 그리고 후손들에게 유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굿을 하고, 내일도 굿을 이으면서, 운동으로써의 싸움굿은 계승되고 있다. 언제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대 지역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 문제를 풀어가는 굿이 살아있는 굿이며, 굿으로 하는 싸움인 것이다.

전통굿이 상실한 싸움의 의미 의례적인 굿을 통하여 모든 죽임의 질곡을 딛고 소생하는 살기위한 싸움이 치열하게 굿 속에 내재하지 않는다면, 또 그러한 굿의 에너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굿의 형식만을 분석하는 연구만이 가치있는 것이라면, 굿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결과적으로 외면하는 것이다.

굿의 소생은 보존이 아니라 재창조이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전통굿에서 상실해 가는 자연과의 싸움, 질병과의 싸움, 이러한 질곡에서 벌어지는 몸부림으로서의 굿이 곧 <싸움굿>이라 감히 생각해 본다. 따라서 필자의 생각으로는 굿은 적어도 굿의 전투성을 상실하지 않아야 하며, 현실의 모순을 척결하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여, 민중이 처한 시대, 지역, 정치적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한 싸움굿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본풀이>는 역사적 해원의 의미를 지녀야 하며, <맞이굿>은 분단 극복의 통일굿이 되고, <놀이굿>은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해방굿의 의미를 되살려 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굿은 현재적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 있다.